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 :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미 현

(백석대학교)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집중관리프로그램

■ 투고일: 2012.1.31 ■ 수정일: 2012.3.2 ■ 게재확정일: 2012.3.23

I. 서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용불안정,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증가 등 사회불안정 요인의 확대를 심화시켰다(김용하, 2010). 10년 전의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획기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10년 후인 최근의 위기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서,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거나 또는 주거·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와 재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강혜규 외, 2007). 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아동청소년, 여성 및 가족, 특수집단(노숙인, 미혼모,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 보육, 주거, 재활,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이 주된 서비스 내용이 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능동적 복지와 친서민정책의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내용 및 효과면에서 볼 때 문제를 안고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기초생활수급자 153만 가구에 사용될 정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절대적 빈곤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보장하게 되었지만 빈곤탈출효과는 크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김용하, 2010).

능동적 복지는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시혜적·사후적 복지를 지양한다. 또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성장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에 의한 성장복지를 강조한다(김용하, 2010). 이런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도입은 서비스의 수혜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 및 능동적 복지실현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즉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최대의 복지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에 매우 적합한 제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가족구조의 부상, 인구고령화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상승 작용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되자, 정부는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민의 의식도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일반화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더 이상 특정계층의 복지만 가지고는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중앙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개발·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은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형성, 건강 투자, 고령 근로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근래 들어 우리 사회의 복지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규모의 축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정해체, 가족과 지역공동체 간의 단절 등으로 인한 가족 내 돌봄기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력 제일의 풍토 속에서 가족이 충분히 돌보지 못해 부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숙·정경희, 2009b). 취약가정이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높은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다.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확충은 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할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10).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잠재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의 10대 유망 서비스를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10a). 그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아동발달지원사업분야’로서, 취약계층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이나 인터넷 중독 등 정서적 결핍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구빈곤과 같은 가정의 취약성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분석한 김광혁과 차유림(2007)의 연구결과, 빈곤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들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의 빈곤이나 경제적 긴장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자아개념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매개(손진희·김안국, 2005)함과 동시에, 행동변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다(이장호, 1982).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격과 정신건강수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황정열, 1999), 이러한 자아개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접촉,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Shaffer, 2000).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아개념은 크게 자기자신감과 자이존중감으로 나눌 수 있다(홍승표, 2008). 자이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Rogenberg, 1965), 이후의 발달 및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Taft, 1985),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Schimmack & Diener, 2003).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 입증되고 있다(Levi, 2001; Marshall et al., 1997; Gottfredson & Hirschi, 1990).

한편, 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또는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낮은 가구소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부정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비행유발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봉쇄력을 가진다고 한다(Reckless et al., 1956). 청소년 비행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찰한 박철현과 서영조(2005)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 자체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영향력있는 요인

임이 밝혀졌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긴장은 비행 유발 요인이 되지만, 긍정적 자아개념이 비행으로의 발전을 막는 의미있는 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은 개인의 적응 및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로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작용(Uhrlass et al., 2008; Buhrmester & Furman, 1987; Cole et al., 2001)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아동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확고하게 자리잡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발달 및 적응력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 또한 자아개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하므로,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의 제공 및 노력이 요구된다.

의도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정유정 외, 2008),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원예치료가 자아개념과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황이화 외, 2007), 소집단 훈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연구(황경열, 1999) 등, 모두 개입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정여주(2007), 남현우와 이지현(1999)의 연구에서도 미술활동을 통한 집단치료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에 미치는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미술치료, 원예치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단일 프로그램을 소집단 아동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포괄적 집중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중관리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미치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시의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선정된 116명의 초등학교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C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조적·기능적·문화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의 아동들로서 빈곤, 가족해체 등의 가족적 위기에 처한 아동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6)

변인	변인구분	빈도(%)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3(45.7)
	차상위계층	7(6.0)
	일반저소득	50(43.1)
	한부모가정	6(5.2)
연령	저학년(1~3학년)	51(44.0)
	고학년(4~6학년)	65(56.0)
성별	남자	75(64.7)
	여자	41(35.3)

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45.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저소득가구가 43.1%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7%, 한부모가정이 6%였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4~6학년의 고학년아동(56.0%)이 1~3학년의 저학년(44.0%)보다 약간 많았다. 성별구성은 남자아동(64.7%)이 여자아동(35.3%)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보였다.

2. 사업의 추진배경 및 진행과정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일자리의 감소, 사회서비스 분야에 창의적인 청년 참여의 필요, 경제 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적극 보호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된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업 청년에게 단순히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일원으로 기여하고 미래의 직업비전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보건복지가족부, 2009b)로 시험적으로 시도된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총 37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2009년 6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모집하여 동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7개월간의 단기집중형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지원사업의 한 유형인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의 아동으로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의 아동에게 위기진단, 학습·특기개발지원, 활동기회 제공, 부모면담,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인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유도함으로써 위기로의 전환을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사회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면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위험요소 및 아동의 위기수준을 진단한 후, 위기수준 및 문제유형별로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사업 진행과정

단계	내 용	세 부 사 항	실시시기
1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신청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통한 대상자 선정	'09. 6월
2	위기진단 및 사전 검사	• 면담 및 스크리닝 검사 통한 대상자 파악 • 사례회의 통한 위기수준 진단 및 개입 서비스 내용 결정	'09. 6월
3	위기수준별 맞춤형선택형 서비스 제공	• 위기수준이 낮은 대상에게는 잠재능력 개발 또는 문제 예방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적응력강화프로그램' 중,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 • 위기수준이 높은 대상에게는 문제 치료 및 해소를 위한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 심신의 건강 및 균형적 발달을 위해 정서, 사회적, 건강영역별로 취약부분 개선 위한 '선택형 월별프로그램' 제공 • 위기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의 문화적 소외 방지 위해 '문화 체험나들이' 실시	'09. 7월 ~12월
4	사례 슈퍼비전	• 서비스 점검 및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슈퍼바이저에 의한 개별 슈퍼비전 또는 집단슈퍼비전을 월 1회 이상 실시	매월
5	프로그램 평가	• 사례회의 및 간담회 통한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평가	분기별
6	사후 검사	•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사후검사 실시	최종회기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 이동청소년자립과에서 제시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09b)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구성하고,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은 서비스 효과의 증대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문제유형별 및 수준별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위기수준 및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선택형 주별프로그램과 월별프로그램,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등 3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프로그램의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목 표	세부 활동 내용	제공주기 (시간)	제공방법
맞춤선택형 주별 프로그램	능력개발프 로그램	잠재능력 개발 통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교과목 학습지원 • 특기적성개발 교육 	매주1회 (1시간)	개별
	적응력강화 프로그램	자존감 증진 및 대인관계훈련 통한 사회적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성장프로그램 • 코칭 리더십 • 사회성 증진 훈련 		
	맞춤형 치료서비스	문제유형 및 수준별 치료적 개입 통한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놀이치료, 음악 치료, 이야기치료) • 인지학습치료, 언어치료 		
맞춤선택형 월별 프로그램	사회친화 체험활동	사회친화적 적응행동 및 대처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운동 • 영화감상 및 토론 • 작은 음악회 	월1회 (2시간)	소집단
	해피 뮤직타임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직 게임 • 어린이 난타 • 리틀 뮤지컬 		
	유소년 스포츠	단체운동 통한 사회성 및 협동심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풋살 • 농구 • 발야구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초체력 증진 및 근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칭 지도 • 근력 강화 운동 		
공동 프로그램	문화체험 나들이	문화정서 지원 및 문화적 소외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지 답사 • 공연 관람 • 체험마을 탐방 	월1회 (8시간)	전체

4. 측정도구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화와 고진영(2006)이 표준화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검사(SCI-II, 2009)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읽기, 수학, 일반교과, 신체 능력, 신체외모, 친구관계, 부모관계, 일반자아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 되어있으며, ‘그렇다’고 응답할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5.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개시된 2009년도 6월, C시 소재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자를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판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개입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접수면접 및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익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입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서비스 종결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술하면, 선정된 서비스신청자를 대상으로 첫 면접에서 위기사정 및 자아개념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간 대상자별로 문제의 유형 및 위기수준, 서비스 욕구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첫 회기에 사용된 검사도구와 동일한 자아개념검사를 재차로 실시하였다.

검사의 진행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첫 회기와 마지막 프로그램 종결 회기에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Win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파악 및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해서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효과는 쌍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문제1>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검사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이주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나타난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전반적 지각 수준은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는 바와 같이 신체외모를 제외한 여타의 영역에서는 ‘보통이다’의 3점에 근접하고 있다. 신체외모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4점에 근접한 점수를 보여 신체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아개념의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수학교과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는 학습영역이나 능력(읽기, 수학, 일반교과, 신체능력), 관계영역(부모관계, 친구관계) 등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 볼 때 환경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천적 특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가정의 아동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 대해 긍정적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 점수

하위영역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문항수
읽 기	9-40	23.86 (7.71)	2.98
수 학	8-40	23.32 (7.52)	2.92
일반교과	8-40	26.00 (7.17)	3.25
신체능력	8-40	24.24 (8.71)	3.03
신체외모	12-40	31.20 (6.40)	3.90
친구관계	8-40	25.48 (7.67)	3.19
부모관계	8-40	25.00 (9.49)	3.13
일반자아	8-40	24.94 (6.94)	3.12

2. <연구문제2>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지각의 차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유형이나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기본적 선정조건이 전국평균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구이므로, 경제적 곤란의 정도보다는 경제적 곤란의 경험유무 그 자체가 자아개념의 지각에 영향 미치는 공통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발달심리학적 단계구분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1~3학년의 저학년집단과 4~6학년의 고학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령별로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읽기’와 ‘쓰기’, ‘신체능력’, ‘부모관계’, ‘일반자아’ 영역에서 저학년아동이 고학년아동보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가면 저학년에 비해 학습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져 학습영역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능력에 대한 또래간 사회적 비교 및 객관적 평가가 더욱 분명해져 신체능력이나 일반자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고학년 아동의 학업에 대한 부담, 자신감의 감소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모관계영역에서 저학년에 비해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추론된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읽기, 쓰기, 신체외모, 친구관계, 일반자아 영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특성상, 사춘기 이전까지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일반적으로 여아가 인지적인 능력이나 신체발달,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보다 앞서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구 분	읽 기 M(SD)	수 학 M(SD)	일반교과 M(SD)	신체능력 M(SD)	신체외모 M(SD)	친구관계 M(SD)	부모관계 M(SD)	일반자아 M(SD)	
가 구 유 형	기초수급권자	24.17 (7.79)	23.34 (7.97)	26.24 (7.96)	23.63 (8.62)	31.51 (6.19)	25.85 (7.84)	24.44 (10.13)	25.61 (6.69)
	차상위층	23.43 (7.50)	25.00 (3.32)	29.14 (4.30)	28.14 (3.53)	31.14 (5.76)	27.43 (6.90)	25.71 (8.79)	25.29 (2.50)
	일반저소득	23.89 (7.87)	23.61 (7.76)	25.22 (6.72)	24.53 (9.49)	31.50 (6.33)	24.92 (7.72)	26.18 (9.14)	24.66 (7.70)
	한부모가정	21.00 (8.08)	17.50 (3.79)	22.25 (6.55)	21.00 (8.29)	25.25 (9.64)	23.50 (8.74)	18.25 (5.91)	20.25 (7.14)
	F값	.207	.931	.874	.726	1.224	.331	.931	.757
연 령	저학년	26.42 (7.45)	26.11 (7.68)	27.75 (6.59)	26.56 (8.60)	31.69(6. 67)	27.11 (6.62)	27.86 (9.20)	26.69 (7.44)
	고학년	22.15 (7.47)	21.46 (6.87)	24.83 (7.36)	22.70 (8.51)	30.87(6. 25)	24.39 (8.18)	23.09 (9.27)	23.78 (6.39)
	t값	2.659**	2.998**	1.918	2.094*	.597	1.665	2.397*	1.986*
성 별	남 자	22.23 (8.34)	21.45 (7.26)	25.96 (7.90)	23.02 (8.14)	29.61(6. 29)	23.55 (7.12)	23.93 (9.14)	22.96 (6.21)
	여 자	26.53 (5.71)	26.41 (7.00)	26.06 (5.88)	26.26 (9.35)	33.82 (5.75)	28.65 (7.59)	26.76 (9.92)	28.21 (6.92)
	t값	-2.648**	-3.189**	-.06	-1.734	-3.184**	-3.209**	-1.382	-3.717***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문제3>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미치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사전검사/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쌍체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입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을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일반교과, 신체능력, 친구관계, 일반자아 등의 하위영역에서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6개월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능력 및 친구관계, 자아에 대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좀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읽기영역과 쓰기영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지는 기초능력이 전체되는 학습영역이므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뒤따르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질을 바탕으로 하므로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 등의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부모관계에 대한 지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사업의 대상이 아동과 부모를 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내용에 부모 또는 가족이 포함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표 6.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자아개념 지각 차이 검증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읽 기	23.49	7.42	24.53	6.08	-1.327
수 학	23.34	7.65	24.60	7.08	-1.732
일반교과	25.55	7.08	27.10	7.11	-2.355*
신체능력	24.47	8.81	26.27	7.74	-2.327*
신체외모	31.16	6.65	30.30	5.47	1.109
친구관계	25.64	7.86	27.62	5.82	-2.355*
부모관계	25.16	9.64	25.86	8.42	- .590
일반자아	24.81	7.18	26.69	5.83	-2.658**

* p < .05,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11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아개념의 수준 및 가구유형과 성별,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입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신체외모영역’을 제외한 여타영역에서는 보

통수준의 지각수준을 보이고, ‘신체의외모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반면, ‘수학영역’은 가장 낮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이는 신체의외모는 선천적 특질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구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므로, 경제적 수준에서 공통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 읽기, 쓰기, 신체능력, 부모관계, 일반자아 등 여러 영역에서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가면 저학년에 비해 학습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져 학습영역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또래간 사회적 비교 및 객관적 평가가 더욱 분명해져 자신감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부모자녀관계에도 부담요인으로 가중되어 긍정적 지각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발달특성상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 인지능력이나 신체발달,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보다 앞서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 및 주위 환경에 대해 갖는 생각, 관념, 태도로서, 성장함에 따라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여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리킨다. 자아개념은 아동의 발달에서 정의적 목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역량의 발달에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김규수, 2006). 이로써,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의 기능을 수행함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출산기피현상의 심화로 점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인구의 동향을 보면, 1970년 16,41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아동인구가 1990년 14,489천명으로 감소하면서 총 인구대비 33.8%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감소세는 지속되어, 2003년 12,140천명, 2005년 11,729천명,

2009년 10,902천명으로 감소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극적인 변화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 12~13%대로 떨어질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한 세대 안에 아동인구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현재 1.24명으로,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1b). 따라서 미래 우리사회 주역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도 아동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기는 한 개인의 삶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기 행동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며, 초기 경험으로 이루어진 발달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부적절한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 아동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좌절감 또는 발달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은 단순히 아동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기에는 성장, 성숙 및 학습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그 시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이후 삶의 과정에서의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아동기의 발달적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이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 발달과업의 원만한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각 연령대에 따른 발달과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아동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적 건강문제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더욱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문제행동, 학습곤란, 우울증 및 열등감 등의 정신병리를 발달시키게 된다(강문희 외, 1998).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은 가장 민감한 집단이다. 아동기에는 환경적 요인에 쉽게 영향 받기 때문에 문제발생률도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높다(구은미 외, 2009).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다

양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문제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와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 심리적 원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로 정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전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이다(김미숙·정경희, 2009a). 2009년도에 총 75개소의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를 2013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총 250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김미숙·정경희, 2009b).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기 발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b).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 증가와 정신건강 수준의 심각성은 전문화된 서비스와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정책을 출생에서 자립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전 연령단계에서 다음 연령단계까지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적으로 기본생활보장 지원, 위기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진로 및 자립, 치료,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일반아동청소년들에게는 잠재역량을 개발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민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분야는 복지서비스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다루어져왔던 분야이다. 예산 면에서도 2010년 예산은 1600억원으로 3.4조에 달하는 노인복지예산의 21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미비할 때 우리 사회의 앞날도 밝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 및 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상별 집중지원체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돌봄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는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의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지역사회욕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여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강상경 외, 2009), 의의있는 사회투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는 더욱 확충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에 대한 검증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표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재원(2009), 이남국과 서재호(2009), 한상미와 이상균(2009), 김선명(2009)의 연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재원(2009)의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상미와 이상균(2009)의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남국과 서재호(2009)의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구현하고 있는 분권형 정부간 관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명(2009)의 연구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공급기관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실시된 이후,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삼은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유형이나 특성, 운영현황,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수혜자에게 가져다준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작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의 포괄적 집중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 및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다룸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목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성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및 실업률 해소의 실태와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어 5년간의 실험기간을 거친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후속연구 및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이템이 개발되고 한국형 복지서비스 모형이 개발되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변국가가 벤치마킹하게 되는 복지선진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미현은 서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아동상담, 위기개입프로그램 등이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mail: mhhan@bu.ac.kr)

참고문헌

-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1998).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강상경, 권석만, 정익중, 서동명(2009).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최현수, 김은지, 최은영 외(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규수(2006).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김광혁, 차유림(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pp.29-51.
- 김미숙, 김승권, 윤상용, 김성희(2010).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66, pp.63-79.
- 김미숙, 정경희(2009a).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47, pp.58-70.
- _____, ____ (2009b). 2010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59, pp.54-65.
- 김선명(2009). 조직 성격의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 S시·K시의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6(3), pp.115-142.
- 김순혜(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17(4), pp.1-18.
- 김영순, 최현수, 이윤경, 방효정(2007).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25, pp.37-61.
- 김용득(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사회복지연구, 36, pp.5-28.
- 김용하(2009). 2009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47, pp.2-3.
- _____(2010).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6, pp.2-3.
- 남찬섭(2008). 민간지배적인 복지체제의 현실과 복지국가 전략. 보건복지에서 진보의 재구성.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p.65-92.

- 남현우, 이지현(199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미술 치료연구, 6(3), 27-72.
- 박수지(2009).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3), pp.155-177.
- 박철현, 서영조(2005). 긍정적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 레크리스의 봉쇄이론의 검증. 형 사정책연구, 16(1), pp.225-253.
-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자 료집. 2009. 5.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9b).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사업운영 설명회 자료집. 2009. 11. 11.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9c).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1a).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11b).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매뉴얼 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10a).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서울: 보건복지 부.
- _____ (2010b).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설명회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
- 성민선(2006). 사회복지와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리뷰, 11, pp.5-25.
- 손진희, 김안국(2005).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 고용교육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385-406.
- 안상훈(2006). 사회서비스 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하나의 비교사회정책적 사설. 한국사 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1-49.
- _____ (2007).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pp.131-159.
- 유시민(2006). 미래지향적 사회정책방향과 역점과제 - 사회투자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11, 3.
- 이경화, 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초등학생용).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이남국, 서재호(20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분권형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 pp.83-106.
-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 강희설, 박숙경, 조윤희 외(2006).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이재원(2009).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 pp.27-47.
- 정경희, 이현주, 박세경, 김영순, 최은영, 이윤경 외(2006). 한국 사회서비스 쟁점과 발전 전략.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여주(2007).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지*, 28(4), pp.97-108.
- 한상미, 이상균(2009).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pp.423-447.
- 홍승표(2008). 사회적 유능에 따른 아동 자아개념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7(2), pp.311-321.
- Bahle, T.(2007). *Wege zum Dienstungsstaat:-Deutschland, Frankreich, Grussbritannien im Vergleich*.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Buhrmester, D.,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pp.1101-1113.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A.(2001).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pp.1723-1746.
- Gottfredson, M.,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anford University Press.
- Levi, Kenneth(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Authority, Self-Concept,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6, pp.333-346.
- Marshall, W. L., Champagne, F., Brown, C., Miller, S.(1997). Empathy, Intimacy, Loneliness, and Self-Esteem in Nonfamilial Child Molester: A

- Brief Report.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6, pp.87-98.
- Reckless, W., Dinitz, S., Murray, E.(1956). Self-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pp.744-74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immack, U., Diener, E.(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pp.100-106.
-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USA: Wadworth/Thomson Learning.
- Taft, L. B.(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d Nursing Science*, 8(1), pp.77-84.
- Uhrlass, D. J., Crosset, S. E., Gibb, B. E.(2008). Self-Perceived Competence,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ex-Specific Vulnerability-Str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4), pp.284-297.

An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Focused on Effects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n, Mi Hyun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Keywords: Investment Program of Community Social Service, Performance Analysis, Intensive Management Program